

# 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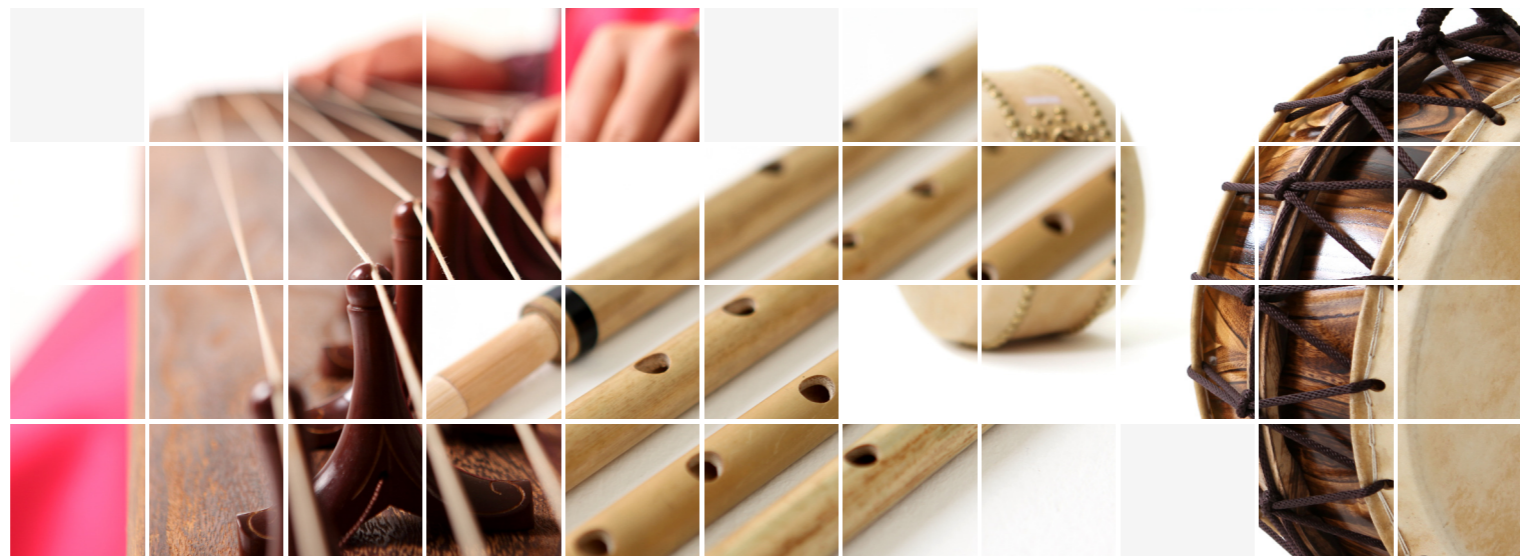
피리소리 '시네 난 시로', 바람결에 스치운다

## PIRI

'Sine-Nan-Silo',  
the sound of a piri (Korean flute)  
wafts with a breeze.



# 한국의 전통악기



한국의 전통악기는 (1) 음악에 따른 분류 (2)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3)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로 구분한다. (1)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은 중국에서 1114년(고려 예종 9년)에 수입된 대성아악에 쓰이는 아악기, 중국과 서역에서 제작되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악기를 가리키는 당악기,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고유의 향악기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이다. (2)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은 자연에서 얻은 여덟 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3)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로 분류하는 방법**은 악기를 연주할 때 나타나는 특징에 따른 것이다.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

# 한국의 전통악기



1493년(조선 성종 24년)에 편찬한 『악학궤범(樂學軌範)』 권6의 <아부 악기 도설>과 <당부 악기 도설>, 권7의 <향부 악기 도설>에 소개된 국악기 분류 방법이다. 크게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나뉘고, 현재 연주되지 않는 악기도 포함돼 있다.

## 향악기(鄕樂器) 향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가야금(伽倻琴), 거문고(玄琴), 향비파(鄕琵琶), 향피리(鄕簫), 대금(大笏), 중금(中笏), 소금(小笏), 소관자(小管子), 초적(草笛)

## 아악기(雅樂器) 아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편종(編鐘), 편경(編磬), 특종(特鐘), 특경(特磬),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뇌고(雷鼓), 영고(靈鼓), 노고(路鼓), 뇌도(雷鼗), 영도(靈鼗), 노도(路鼗), 도(鼗), 절고(節鼓), 진고(晉鼓), 축(祝), 어(敵), 관(管), 약(籥), 화(和), 생(笙), 우(竽), 소(簫), 부(缶), 적(箏), 훈(埴), 지(篋), 슬(瑟), 금(琴), 순(鎗), 탁(鐸), 요(鐔), 탁(鐃), 응(應), 아(雅), 상(相), 독(牘)

## 당악기(唐樂器) 당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박(拍), 방향(方響), 월금(月琴), 교방고(敎坊鼓), 장구(杖鼓), 당비파(唐琵琶), 해금(奚琴), 대쟁(大箏), 아쟁(牙箏), 당피리(唐簫), 당적(唐笛), 통소(洞簫), 태평소(太平簫)

# 한국의 전통악기



중국 고대 음악 관련 문헌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말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악고(樂考)」에 소개된 국악기 분류 방법이다. 악기의 재료에 따라 크게 팔음(八音)으로 분류한 뒤, 아악에 해당하는 <아부(雅部)>와 속악에 해당하는 <속부(俗部)>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연주되지 않는 악기도 있다.

## 금부(金部)악기 쇠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특종, 편종, 순, 요, 탁(鐸), 탁(鐃)

속부: 향발, 방향, 동발(銅鈸)

## 석부(石部)악기 돌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경(磬)

## 사부(絲部)악기 줄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금, 슬

속부: 거문고, 가야금, 해금, 당비파, 향비파, 월금, 대쟁, 아쟁, 알쟁(篋箏)

## 죽부(竹部)악기 대나무가 주재료인 악기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

# 한국의 전통악기



아부: 소(簫), 약(簫), 관(管), 적(簞), 지(篋)

속부: 대금, 중금, 소금, 통소, 당적, 당피리, 태평소

**포부(匏部)악기** 바가지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생(笙), 우(竽), 화(和)

**토부(土部)악기** 흙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훈, 상, 부, 토고(土鼓)

**혁부(革部)악기** 가죽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건고, 삭고, 응고, 뇌고, 영고, 진고, 노고, 뇌도, 영도, 노도

속부: 대고, 소고, 절고, 교방고, 장구

**목부(木部)악기** 나무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부, 축, 어, 응, 아, 독

# 한국의 전통악기



1914년 호른보스텔(E.M. von Hornbostel, 1877~1935)과 쿠르트 작스(Curt Sachs)의 저서『악기분류법시도』에도 소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로 크게 나눈 다음, 관악기를 북 종류와 그 밖의 악기로 나누는 방법이다.

**현악기(絃樂器)** 줄을 뜯거나 튕기고, 도구를 이용해서 소리 내는 악기

가야금, 거문고, 해금, 양금, 아쟁 등

**관악기(管樂器)** 호흡을 이용해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내는 악기

대금, 피리, 단소, 태평소, 통소, 훈 등

**타악기(打樂器)** 채와 손을 이용해 두드리고 쳐서 소리 내는 악기

편종, 편경, 장구, 북, 좌고, 팽과리 등



○

一

알  
아  
보  
기

○

二

살  
펴  
보  
기

○

三

체  
험  
하  
기



# 1

## 알아보기

피리의 기원과 유입 경로

기록과 유물 속의 피리

피리의 재료와 형태

피리 제작 과정





# 피리의 기원과 유입 경로

피리의 기원은 인류의 출현과 맥을 함께한다.



뼈 피리

초기 피리는 동물의 뼈로 만들었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와 같은 뼈 피리가 발견되고 있다. ↕  
 동물의 뼈는 구멍을 뚫어 바람을 불어 넣으면 소리가 쉽게 난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슬로베니아 아드리아해 인근 이드리아에서 발견된 곰의 뼈로 만든 피리(4만3천 년~8만2천 년 전), 독일 서남부 쉘클링겐의 홀스 펠스 동굴 유적에서 발견된 mammoth 상아와 새의 뼈로 만든 피리(3만5천 년 전), 중국 허난성 지아후 유적에서 발견된 새의 뼈로 만든 피리(9천 년 전)가 출토되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피리는 함경북도 웅기군 서포항에서 출토된 뼈 피리(청동기 시대)이며,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관악기를 불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피리 연주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리는 한자로 표기하면 ‘필률(龠簫)’이라고 하며, 크게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세 종류로 나뉜다. 향피리와 세피리는 서역지방에서 곧장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피리는 한 무제 때 카르가스(kashgar) 지방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당나라 때 다시 정비되어 당피리란 이름으로 수입되었다. 피리 유입에 관해서는 고려 광종(949~975) 때 악공을 초청한 기록과 고려 문종(1046~1083) 당시 대악관 현방 설치에 관한 기록, 1114년(고려 예정 9년) 중국 송나라의 대성신악과 함께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 피리의 기원과 유입 경로

피리의 기원은 인류의 출현과 맥을 함께한다.



뼈 피리

향피리는 전통음악 가운데 대풍류, 무용반주, 대편성의 관현 합주곡을 연주할 때 쓰이며, 전체 음악을 아우르는 주선율을 담당한다.

세피리는 향피리나 당피리에 비해 음량이 작고, 주로 거문고나 가야금, 양금 등의 현악기 중심의 소규모 실내악 편성에서 연주된다.

당피리는 주로 당악 계통의 음악에서 쓰인다. 연주할 수 있는 음역대는 황종에서 청임종 또는 청남려까지로, 당악에서 사용하는 음역대를 연주할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향악을 연주할 때 지공(관의 구멍)이 7개인 피리가 편성되었다. 피리는 조선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음악에서 주선율을 담당하는 악기로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에서 폭넓게 연주되고 있다.



# 기록과 유물 속의 피리



뼈 피리(骨製笛)

청동기시대 | 함경북도 선봉군 서포항 유적 | 길이 17.2cm

뼈 피리는 새의 다리뼈를 사용해 만든 관악기로 지공을 막거나 열어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피리처럼 음악을 연주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중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뼈 피리가 구멍이 여러 개 뚫린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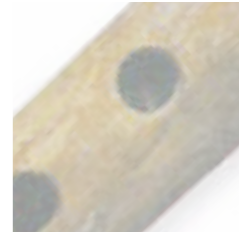




# 기록과 유물 속의 피리



고구려 벽화속 피리(안악 3호분, 4세기경)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등장하는 관악기는 크게  
 끝을 향해 부는 종적(縱笛)과 옆으로 향하는 횡적  
 (橫笛)으로 나뉜다.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 위치한  
 오회분 4호묘와 5호묘 벽화에는 횡적을 부는 모습  
 이 보인다. 종적은 황해도 안악 3호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피리에 비해 길이가 상당히  
 길어 앉아서 불었을 때 악기 끝이 바닥에 닿을 듯  
 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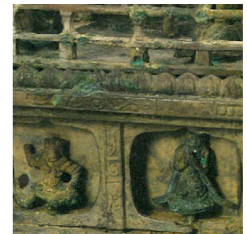
# 기록과 유물 속의 피리



전각모양 사리기(金銅舍利)  
내함(內函)

통일신라 | 보물 제366호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높이 16.5cm | 경상북도 경주시 감은사 터 서삼층 석탑에서 발견

전각모양 사리기의 네 모서리는 저마다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천인으로 만들어져 있다. 피리를 연주하는 천인은 머리를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 굽고 짧은 형태의 피리를 불고 있다. 연주 모습이 고구려 벽화를 비롯한 여러 유물에서 볼 수 있는 연주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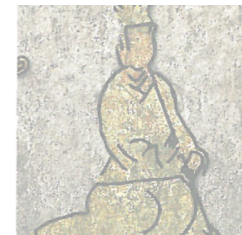


# 기록과 유물 속의 피리

## 피리를 부는 천인

통일신라 | 높이 9.4cm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꽃 대좌 위에 결가부좌를 틀고 있는 천인이 피리를 쥐고 연주하는 모습이다. 피리 표면에 그어진 선은 대나무 마디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석에 가까운 피리 연주 자세를 확인해볼 수 있다.





# 기록과 유물 속의 피리



## 오음육률 (五音六律)

조선 19세기 | 세로 26.5cm,  
가로 18.7cm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소장

19세기 후반 백성들의 생활모습을 담은 김준근의 풍속화로 피리, 대금, 좌고, 해금이 어울린 삼현육각 편성을 소개하고 있다. 향피리가 두 개로 그려져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피리 한 개로만 연주하는 경우도 많다.





# 피리의 형태와 재료

향피리와 세피리는 형태나 재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당피리는 제작 방법이나 재료 등이 약간 다르다.







# 피리의 형태와 재료



## 서(舌)

피리는 음량이 매우 큰 악기인데, 이것은 피리의 '서'가 바람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관대를 관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서는 해묵은 대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깎아 납작하게 붙여서 만든다. 이것을 관대의 위쪽에 꽂아 입김을 불어 넣어 소리를 낸다. 두 겹의 서는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진동하는데, 마른 상태에서는 떨리지 않으므로 연주 전에 충분히 물에 넣고 불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 피리의 형태와 재료



## 지공

향피리는 『고려사』 중 「악지」에 지공이 7개라고 소개돼 있으나 이후 뒷면에 1개, 앞면에 7개가 있는 지공으로 변했고 세피리 역시 마찬가지다. 당피리는 『고려사』 중 「악지」 권7과 『세종실록』 권132에는 9개의 지공으로 소개돼 있지만 조선시대 『악학궤범』 권7에서는 향피리처럼 8개의 지공으로 개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피리 뒷면에 난 지공은 가장 높은 음을 내면서 첫 번째로 짚는 역할을 하지만 당피리 뒷면의 지공은 앞면 제1공과 제2공 중간쯤 되는 위치의 뒷면에 뚫려 있다는 것이 다르며, 이것은 다른 관악기인 ‘태평소’와 유사하다.





# 피리의 형태와 재료



## 관대

향피리와 세피리는 대나무의 일종인 '시누 대나무'를 주재료로 삼고, 당피리는 '황죽(篁竹)'이나 '오죽(烏竹)'을 사용해 제작한다. 시누 대나무는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다른 종류의 대나무보다 곳곳에 많이 분포하지만 자라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 중 충청북도 서산이나 충청남도 당진과 같이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자라는 시누 대나무를 '해죽(海竹)'이라고도 부른다.

해죽은 성질이 강하고 채취할 수 있는 수량이 많은 편이지만, 대나무 마디 사이가 짧고 굵기 때문에 악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 남원이나 전라남도 나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시누 대나무는 '산죽(山竹)'이라고 하는데, 산죽은 악기로 만들었을 때 강도는 약한 편이지만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대나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악기 제작자나 연주자의 기호에 맞춰서 채취한다.



# 피리 제작 과정



서 제작 과정 11> 서 무는 부분 지지기  
불에 달구고 나면, 서의 단단해짐이 더욱 강해진다.

제작순서 +      제작도구 +



# 피리 제작 과정



## ① 대나무 선택과 재료 자르기

관대 속 지름에 따라 음높이나 지공 간격이 바뀌므로 연주자가 편하게 느끼는 규격으로 제작하려면 관대 속 비어 있는 공간의 지름이 약 6mm, 나무의 두께는 2mm 정도가 좋다. 나무 굵기가 획일적이지 않아야 하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 ② 대나무 삶기

잘라낸 시누 대나무를 삶는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나무가 더욱 단단해지고 맑은 소리가 나게 된다. 서를 제작할 때는 대나무의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삶지 않으면 제작할 때 칼날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 피리 제작 과정



## ③ 내경 청소하기

대나무 내부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관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얇은 솔을 사용해서 관대 끝과 끝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청소한다. 대나무 속에 있는 얇은 막을 없애는 것이 이 작업의 목적이다.



## ④ 서늘한 곳에서 말리기

여름에는 사흘, 겨울에는 일주일 정도 자연 건조한다. 겨울 동지 이후부터 늦어도 3월 안에 채취한 대나무는 안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악기로 제작해도 쉽게 쪼그라들지 않는다. 그늘진 곳에서 서늘하게 말린다.



# 피리 제작 과정



## ⑤ 기본 치수 재기

전본 막대에 맞는 크기로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남은 대나무를 한 마디씩 나누어 막혀 있는 쪽을 잘라 준비한다. 그리고 나서 대나무 양 끝에서 7.5~8cm 정도의 길이로 잘라낸다. 이 두 개가 서의 재료가 된다.



## ⑥ 절단 및 공기부분 금긋기

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대에 꽂는 '촉두리' 부분이 좁아야 하고 입으로 부는 윗부분은 넓어야 한다. 서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는 윗부분이 8~10mm 사이, 아랫부분은 6~8mm 사이 정도의 굵기를 가진 대나무가 적당하다.



# 피리 제작 과정



## ⑦ 서 무는 부분 두께 정하고 내려깎기

서 무는 부분을 적당한 두께로 다듬어낸다. 꺾질을 한 겹 다 벗기면 밑 부분의 절반부터 깎고 절반의 절반 부분부터 다시 깎는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얇게 만들고 아랫부분이 관대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 다듬는다.



## ⑧ 지름 내기

서의 머리 부분과 밑동을 구분하고 선을 긋는다. 머리 부분 끝에서 용도에 따라 4~5.2cm 정도 내려온 지점에 칼집을 낸다. 윗부분부터 홈을 파 놓은 곳까지 겉껍질을 벗기는데 약 2mm 폭으로 칼날을 넣고 돌려가며 벗긴다.





# 피리 제작 과정



## ⑨ 누르기

막대와 실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서가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도록 돕는 다양한 과정 중 하나다. 자칫 거칠게 다루다 보면 형태가 변형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⑩ 중간 철사 묶기

철사를 이용해 고정시켜 모양이 변하지 않게 한다. 접어서 만든 서는 일주일가량 말리고 거친 부분을 칼로 잘 다듬는다. 중간 부분에 0.5mm 정도 되는 두께의 선을 감아주는데 이 선은 서가 펴지거나 납작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 피리 제작 과정



## ⑪ 서 무는 부분 지지기

불에 달구면 서는 더욱 단단해진다. 중간 부분이 구워지면 앞부분도 살짝 굽는다. 서의 앞부분이 벌어지면서 부풀어 오르면 타지 않게 유의한다. 굽기가 마무리되면 감아놓은 철사의 양 끝 부분을 살짝 눌러 모양을 잡는다.



## ⑫ 깎고 다듬기

서의 입에 무는 부분이 아래로 오게 잡은 다음 먼저 양 끝을 아래로 살짝 깎는다. V자 모양으로 얇게 깎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는 중간 부분이 두터워지고 입술이 닿는 부분은 얇아진다. 소리를 내보면서 입에 맞게 서를 다듬는다.



# 피리 제작 과정



## ⑬ 사포질하고 다듬기

서의 형태를 세밀하게 잡아주면서 생김과 성능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세밀한 사포질을 통해서 미묘한 소리의 변화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악기 장인과 피리 연주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끝까지 정성을 쏟는 과정이다.



## ⑭ 손질한 재료 '잡기'

자연에서 구한 나무이므로 약간씩 휘어지거나 뒤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 관대 굽기만큼 홈을 파놓은 나무를 미리 준비한다. 이 안에 관대를 넣고 수차례 왕복시켜 모양을 반듯하게 굳힌다.



# 피리 제작 과정



## ⑮ 치수 재기

색깔을 낸 다음에는 관대의 앞 지공을 뚫을 지점을 정하고 위아래에 중심선을 긋는다. 중심선 위에 미리 정해둔 치수를 중심으로 지공을 뚫을 자리를 표시한다. 뒷구멍은 앞 구멍과 대칭이 되게 위치를 정하고 구멍 뚫을 자리를 표시한다.



## ⑯ 구멍 뚫기

표시된 자리에 지공을 뚫는 과정은 천천히 내려가며 진행한다. 지공은 대략 5.5~6mm 정도의 드릴을 사용해 뚫는다. 구멍이 넓어지면 바람이 빠져나가 소리가 커지고 시원해진다. 완성되면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어 준다.



# 피리 제작 과정



장인이 손수 제작한 도구들이다. 피리가 탄생하기까지 매 공정마다 산과 역할을 하고 있다. 피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세밀한 공정도 많다. 도구들 역시 섬세하고 날카로운 것들이 대부분인데, 서의 밑부분을 다듬는 조각칼이 미묘한 차이를 갖고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정확한 치수를 재기 위한 '자'와 휘어진 대나무 관대를 곧게 펴주는 나무 막대 등에서 그동안 장인이 만들어온 피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 二

살펴보기

피리 생김새

정재국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최경만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연주 방법



# 피리 생김새



## 전체 구조

손가락으로 지공을 짚어 가락을 연주하는 ‘관대’, 입으로 물고 부는 ‘서’로 나뉜다. 관과 서의 굵기와 길이는 악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서는 관의 굵기만 한 대를 깎아 겹으로 접어 사용한다.

향피리 중에서 정악 연주를 위한 정악관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길이가 대략 26cm에서 27cm이고, 민요관은 대략 25.5cm 가량 되며 산조 연주를 위한 시나위관은 25cm 정도로 제작한다. 피리의 규격은 『악학궤범』과 같은 고문헌에도 정확한 치수가 제시된 바가 없어 문헌이나 사실적 기록보다는 현행 제작되는 향피리 치수와 여러 연주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피리의 평균적인 수치를 고려해야 한다.



# 피리 생김새



입술로 무는 부분



관대에 끼우는 부분



가느다란 구리철사로 촘촘히 감는다



관대 윗부분





# 피리 생김새

25cm ~ 27cm



정악 연주를 위한 정악관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길이가 대략 26cm에서 27cm이고, 민요관은 대략 25.5cm가량이며 산조 연주를 위한 시나위관은 25cm 정도로 제작한다.



# 피리 생김새





# 정재국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명인 약력 + 인터뷰 + 연주곡 듣기 +



# 정재국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 정재국

- 1942년 충북 진천 출생
-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졸업
- 김준현, 김태섭 피리 정악, 이충선 피리 시나위, 최인서 대취타 사사
- 1998~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원장 역임
- 2008~현재 국립국악원 원로사범,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 1989년 문화공보부장관 표창, 2008년 보관문화훈장
- 2011년 방일영국악상 수상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예능 보유자,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 정재국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 우리 음악에서 피리의 역할은?

피리는 우리 악기 중에서 관악기 대금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관악기입니다. 피리는 민속악이나 정악에서 거의 모든 음악에 쓰일 정도이며 합주음악에서는 리더 역할까지 합니다. 음악의 주선율을 담당하고 소리가 커 음악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는 합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악이나 민속악에서 두루 두루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피리의 특징은?

피리의 크기는 다른 악기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음량은 어떤 악기보다도 큼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피리를 보고 마이크가 달렸나며 직접 확인을 할 정도로 크기에 비해 소리가 엄청나게 큼니다. 특히 피리는 강약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악기의 장점입니다. 피리는 아주 여리거나 강한 느낌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피리의 연주에는 '요성'이라고 하는 주법이 있습니다. 요성도 위로 뻗어서 하는 요성, 평으로 평평하게 하는 요성, 밑으로 하는 요성 등이 연주되지요. 강약의 조화가 대단합니다. 강약으로 만들어가는 음악의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고 우리 전통 한국 소리의 맛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음악에서는 풀고 조인다고 하는데 서양 음악에서는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음악은 한 소절 안에 긴장과 이완, 풀고 조이는 기법을 항





# 정재국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상 써야 제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음악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피리는 긴장과 이완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악기입니다.

## 피리의 역할은?

궁중음악은 합주 위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분에서 1시간까지 연주합니다. 정악을 합주로 하려면 일단 암기가 중요합니다. 한 시간 동안 연주하는 곡도 전부 암기를 해야 하니까요. 또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연주하기 때문에 아주 크고 깨끗한 소리로 음향을 내줘야 전체 음악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실내 공연에서는 작은 크기의 세피리를 쓰지만 실외 공연에서는 당피리나 향피리를 주로 쓰며 전체 음량을 크게 합니다.

## 피리 연주자로서 선생님의 삶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1956년 국악사양성소 2기생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8년째 연주를 하고 있지요. 저는 그동안 피리를 떠나본 적이 없을 만큼 항상 피리와 삶을 같이 해왔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피리를 불고 해외에 나가서도 피리를 항상 불었습니다. 또 국립국악원 단원으로 재직할 때에도 피리연주자로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피리 연주자 중에는 ‘목피리’라고 부르는 연주자가 있는데요, 이 목피리는 서양 오케스트라의 제1바이올린과 마찬가지로 전체 음악을 주도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국립국악원의 목피리로서 전체 음악을 주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 피리로 정악을 연주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피리는 다른 악기에 비해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들지요. 피리의 취법은 양악에서의 취법과 완전히 반대입니





# 정재국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다. 입을 오므려서 부는 방법이 양악기 취법이라면 우리 피리의 취법은 입술을 펴고 내뿜기 때문에 목에서 나오는 호흡의 양만으로는 안 되고 배에서 우러나오는 호흡을 써야 합니다. 단단하고 깨끗하며 시원시원한 소리를 내는 것이 정악 연주에서의 올바른 소리지요. 궁중 음악은 큰 감정을 넣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보다는 마음을 잘 조절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피리로 연주하는 정악의 소리라 하겠습니다.

## **피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리를 배우는 것은 다른 악기와 달리 처음이 좀 어렵습니다. 피리는 부는 악기이기 때문에 김이 많이 들어갈뿐더러 처음에는 깨끗한 소리는커녕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예 소리 자체가 제대로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서 2년은 불어야 피리 소리다운 소리가 납니다. 연주법 또한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연주해야 어지간한 기술을 모두 습득해 피리 한가락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피리는 나이가 들어서 부는 사람이 적습니다. 전문 연주가들도 50대 전후면 대개 피리 연주 수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피리를 오래 불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조금씩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민요곡을 배우면 좀 쉬울 거예요.



# 정재국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정재국 명인 연주곡 <영산회상 중 '상령산' 1장>







# 최경만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명인 약력 + 인터뷰 + 연주곡 듣기 +



# 최경만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 최경만

- 1947년 서울 출생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역임, 대풍류 중 대영산 재연 공연

현재 부여군 충남국악단 예술감독, 삼현육각 보존회 회장,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겸임교수, 한국음악 총연합회 이사장,  
서울시 중요무형문화재 삼현육각 예능 보유자



# 최경만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 민속음악에서 피리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민속악에서 피리가 편성된 음악은 ‘대영산’이 있습니다. 대영산은 민속음악의 ‘영산회상’입니다. 그 다음 ‘취타 풍류’가 있습니다. 취타 풍류는 걸으면서 연주하는 음악인 행악입니다. 또 ‘대풍류’라는 곡이 있는데요, 대풍류는 사실 염불 풍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염불 풍류는 승무에서 쓰이는 음악입니다. 이 세 가지 음악이 민속음악에서 피리가 주선율을 담당하는 기악 편성입니다.

## 피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피리는 관대에 서를 끼워 연주합니다. 서를 끼울 때에는 물을 묻혀 돌려서 끼웁니다. 또 피리는 매력적인 악기이긴 하지만 음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리가 여성들의 음역대에 맞춰서 나온 악기인지 모르겠으나 여성들이 노래를 부를 때 반주하는 것은 좋은 반면 남성들의 음정에 맞춰 반주할 때는 피리를 올려 잡았다 내려 잡았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리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 피리 주법을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악기를 약간은 흔들며 배로 밀어내는 굽은 농음을 시작하고 나중에 마무리는 입, 그 다음엔 턱으로 합니다. 이때 아래 입술을 물고 턱으로 얇게 흔들어서 마무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음은 피리 주자마다 다른 방법을 쓰지만 저는 악기를 약간 흔들면서 동시에 호흡과 목으로 밀어내며 꽤 여유 있는 농음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턱과 입술 위에서 잘게 흔들며 마무리 짓습니다.



# 최경만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피리의 매력은?

피리의 매력은 작은 악기에서 때로는 여성스러운 소리도 나오고 때로는 남성스러운 소리도 나오는 점입니다. 양면을 아우르면서 그리고 연주하고 싶은 방법을 택해서 피리의 오르내리는 윗소리와 아랫소리에 어울려 나오는 성음을 낼 때, 그때 저는 피리가 참 매력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 정악과 민속악에서 피리 연주 방법의 차이는?

정악과 민속악을 연주할 때 피리 연주의 차이는 우리가 말하는 요성, 즉 농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악은 바른 음악이니만



# 최경만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큼 늠름하고 점잖으며 듬직한 성격을 드러내고 민속음악은 예쁘고 아주 매력 있는 소리를 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악의 흔들림과 민속악의 흔들림이 두 악기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 피리를 연주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피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피리가 있고 향피리가 있고 세피리가 있죠. 향피리는 주로 민속음악에서 쓰이며, 제가 주로 연주하는 피리입니다. 피리를 불 때에는 피리를 물고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는데요, 아랫입술로 피리 서를 덮으면서 꼭 물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소리가 눌러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가 찌그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 모양은 꼭 무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편안하게 물어주는 겁니다. 바람이 새지 않게 하고 막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최경만 명인이 소개하는 피리



최경만 명인 아리랑 연주곡 〈아리랑〉



살펴보기



# 피리 연주 기본 자세

소리를 낼 때에는 가슴을 앞으로 내밀지 않고,  
어깨와 목에 힘을 주지 않는다.  
아랫배와 서를 무는 입술에만 힘을 준다.





# 피리 연주 방법



## 정악 연주 +

혀치기, 시루, 루리, 요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주법이 주로 사용된다. 정악을 연주할 때는 감정의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음악을 통해 넓은 세계관을 구현하고자 한 선인들의 정신을 느끼도록 한다.

## 민속악 연주 +

서치기, 더름, 꺾는음, 목튀김 등의 주법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민속악 연주는 인간만사에 담겨 있는 온갖 희로애락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며, 음악 안에서 자유로웠던 옛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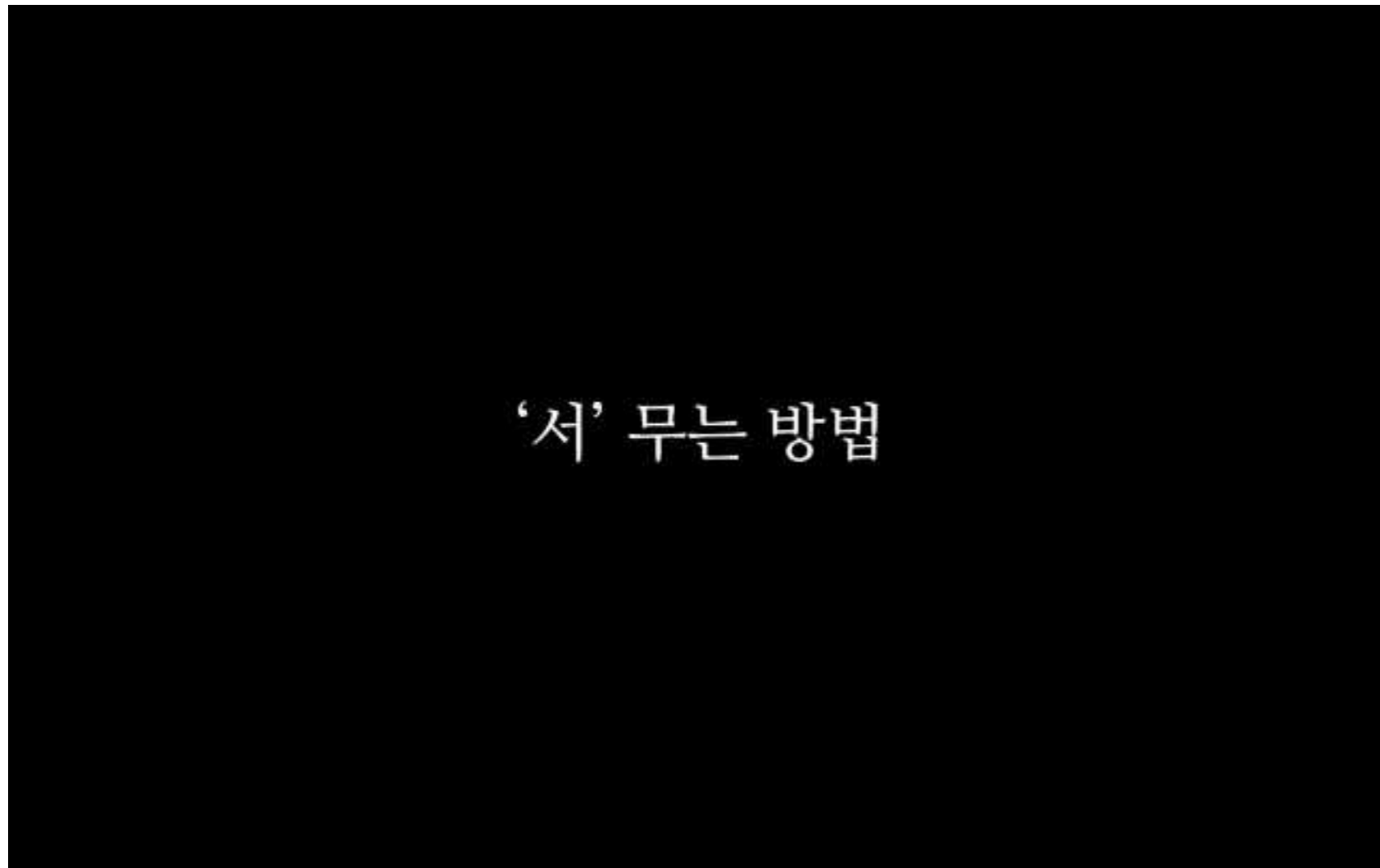






# 피리 연주 방법

힘 있는 적절한 음색을 내기 위해서는 입술에 힘을 지나치게 주거나 철사 부분까지 물어서는 안 된다.



## 서 무는 방법

청의 의미

운지법

초·홀·겹더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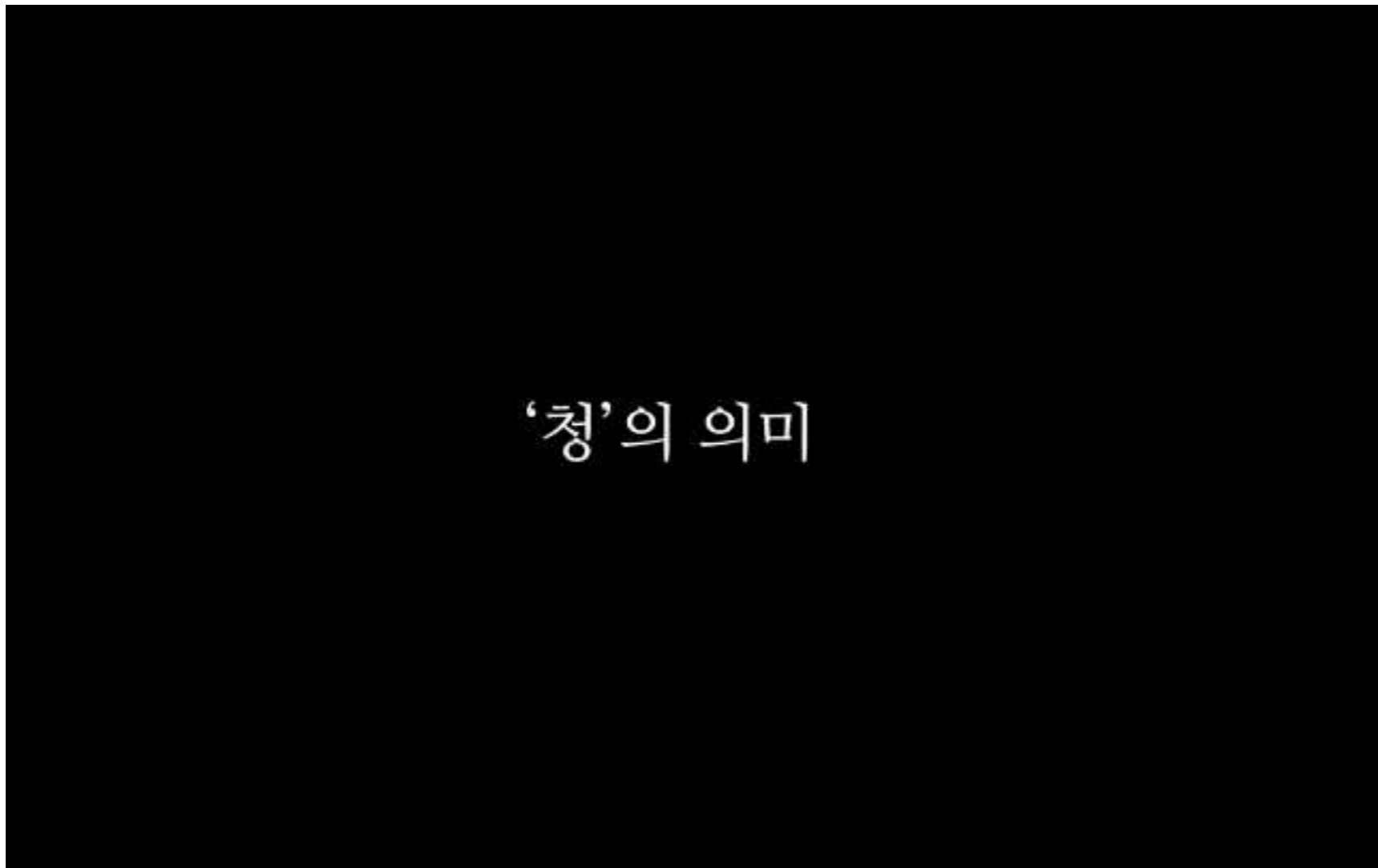
서치기

시네·떼



# 피리 연주 방법

6개 지공을 모두 막고 내는 음을 산조청 또는 '6관청'이라고 하고, 맨 아래 지공 하나만 열고 내는 음을 민요청 또는 '5관청'이라고 한다. 음고가 높아짐에 따라 '4관청', '3관청'으로도 구분된다.



'청'의 의미

서무는 방법

청의 의미

운지법

초·홀·겹더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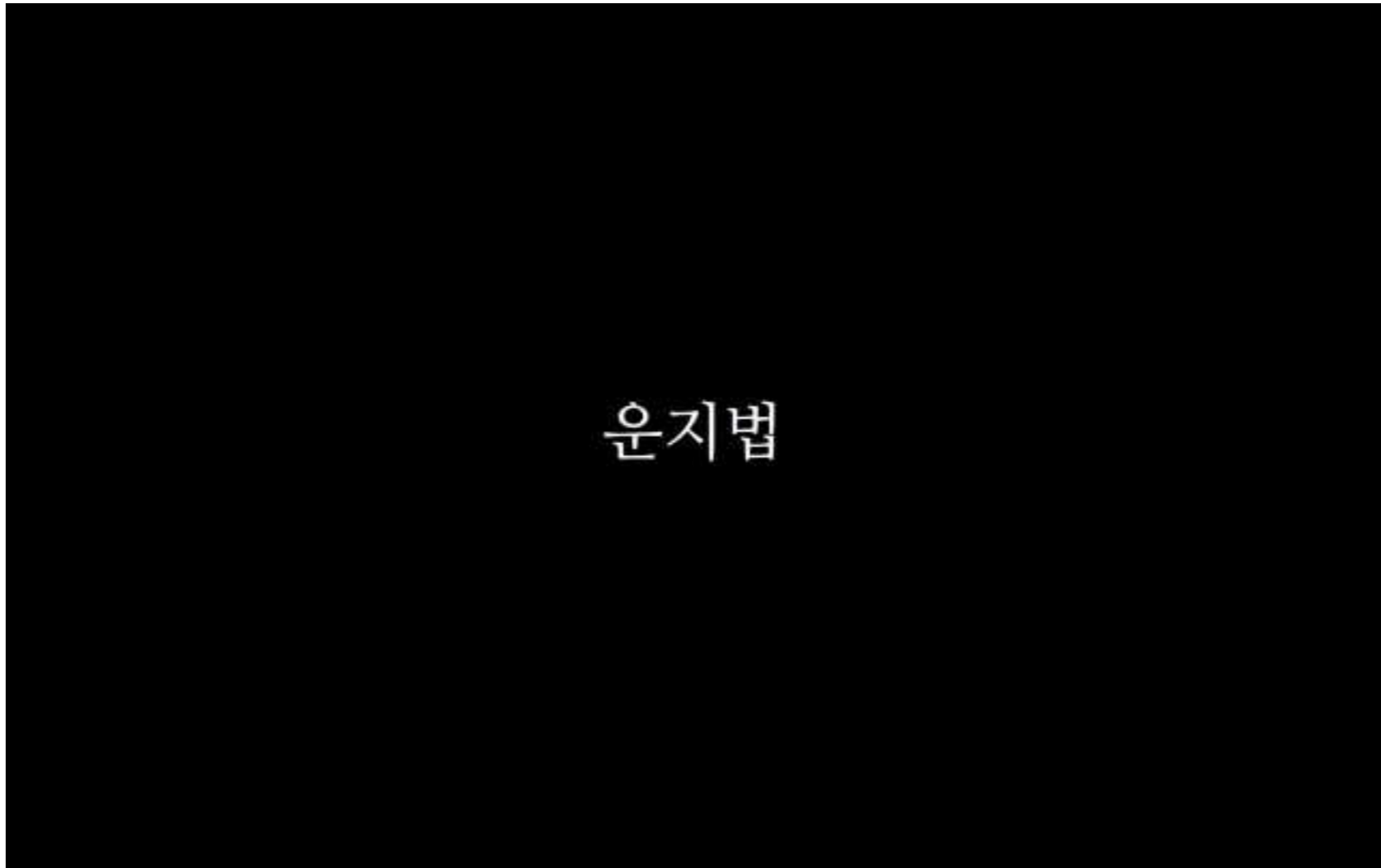
서치기

시네·떼



# 피리 연주 방법

지공을 짚는 방법이다.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멍을 가볍게 막고 열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무는 방법

청의 의미

운지법

초·홀·겹더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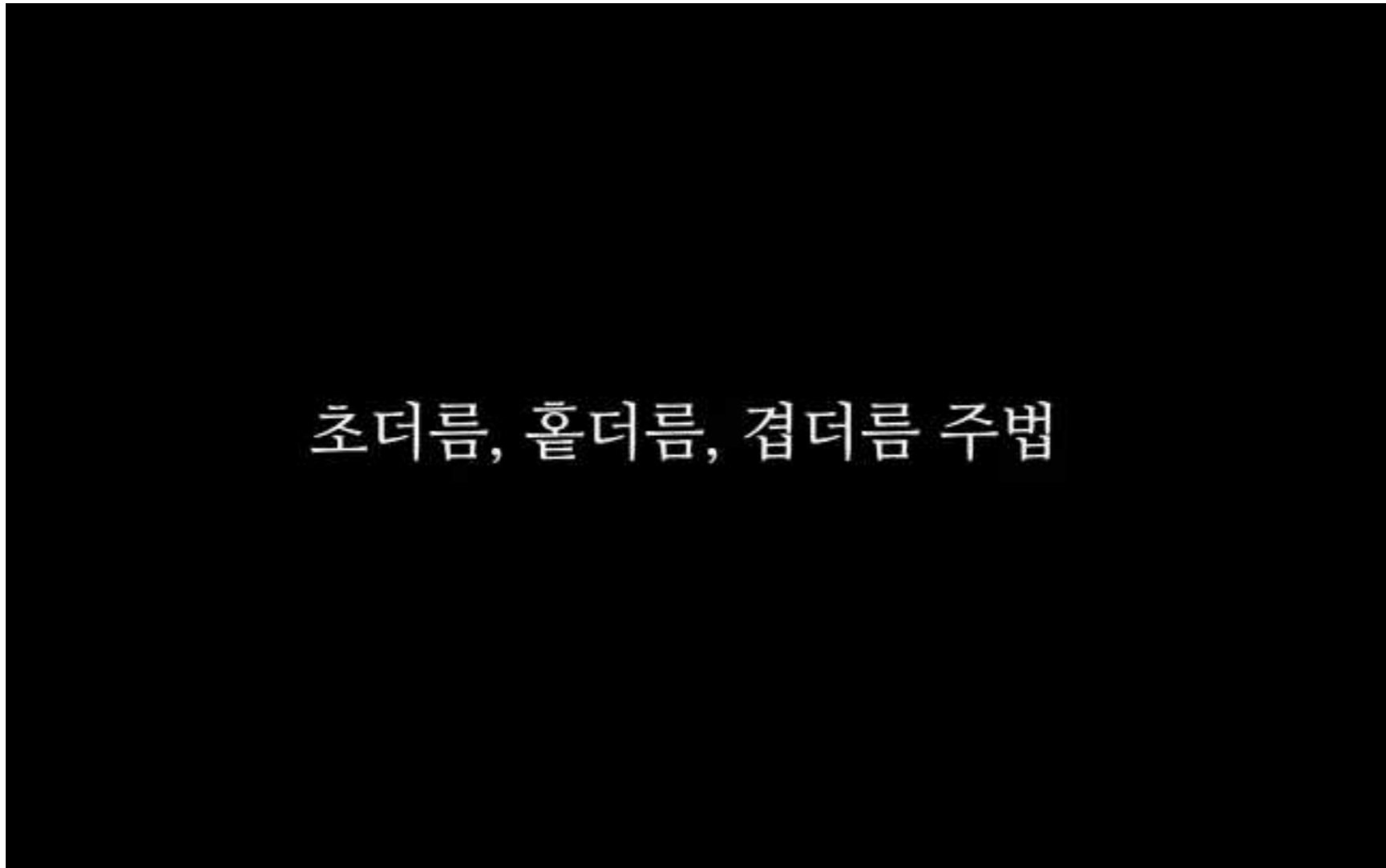
서치기

시네·떼



# 피리 연주 방법

‘더름’은 두 음 이상의 음을 진행할 때 음과 음 사이에 장식음을 넣어서 선율을 강조하는 주법이다.



초더름, 홀더름, 겹더름 주법

서무는 방법

청의 의미

운지법

초·홀·겹더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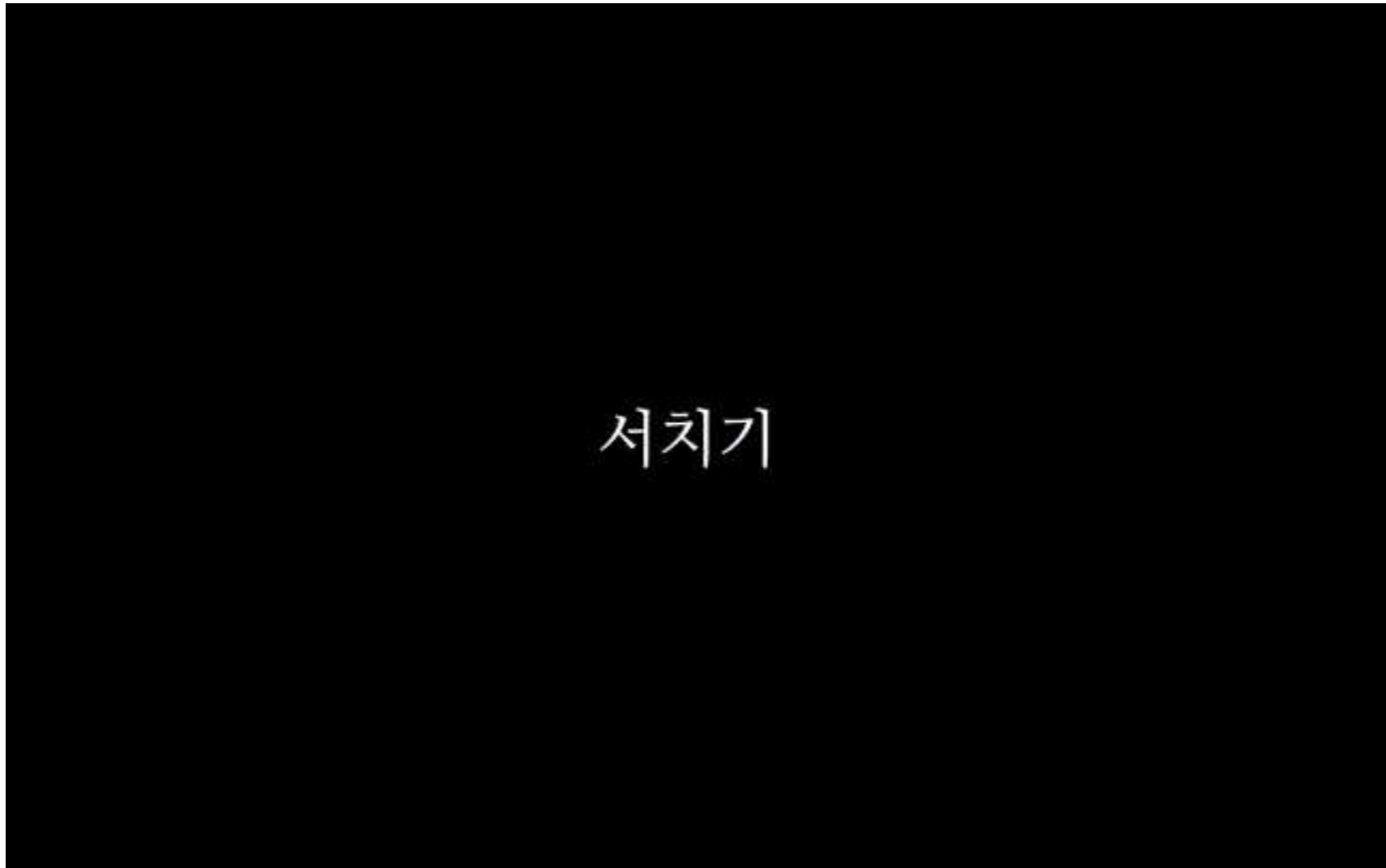
서치기

시네·떼



# 피리 연주 방법

뒷면의 지공을 열거나 왼손 엄지로 뒷면 지공을 동시에 치면서 혀를 피리 서 끝에 댔다가 순간적으로 떼는 방법이다.



서 무는 방법

청의 의미

운지법

초·홀·겹더름

서치기

시네·떼



# 피리 연주 방법

서치기의 일종으로 '시네'는 서를 혀로 강하게 내려치듯 연주하는 주법이며, '떼'는 경과음을 가리킨다.



시네, 떼

서 무는 방법

청의 의미

운지법

초·홀·겹더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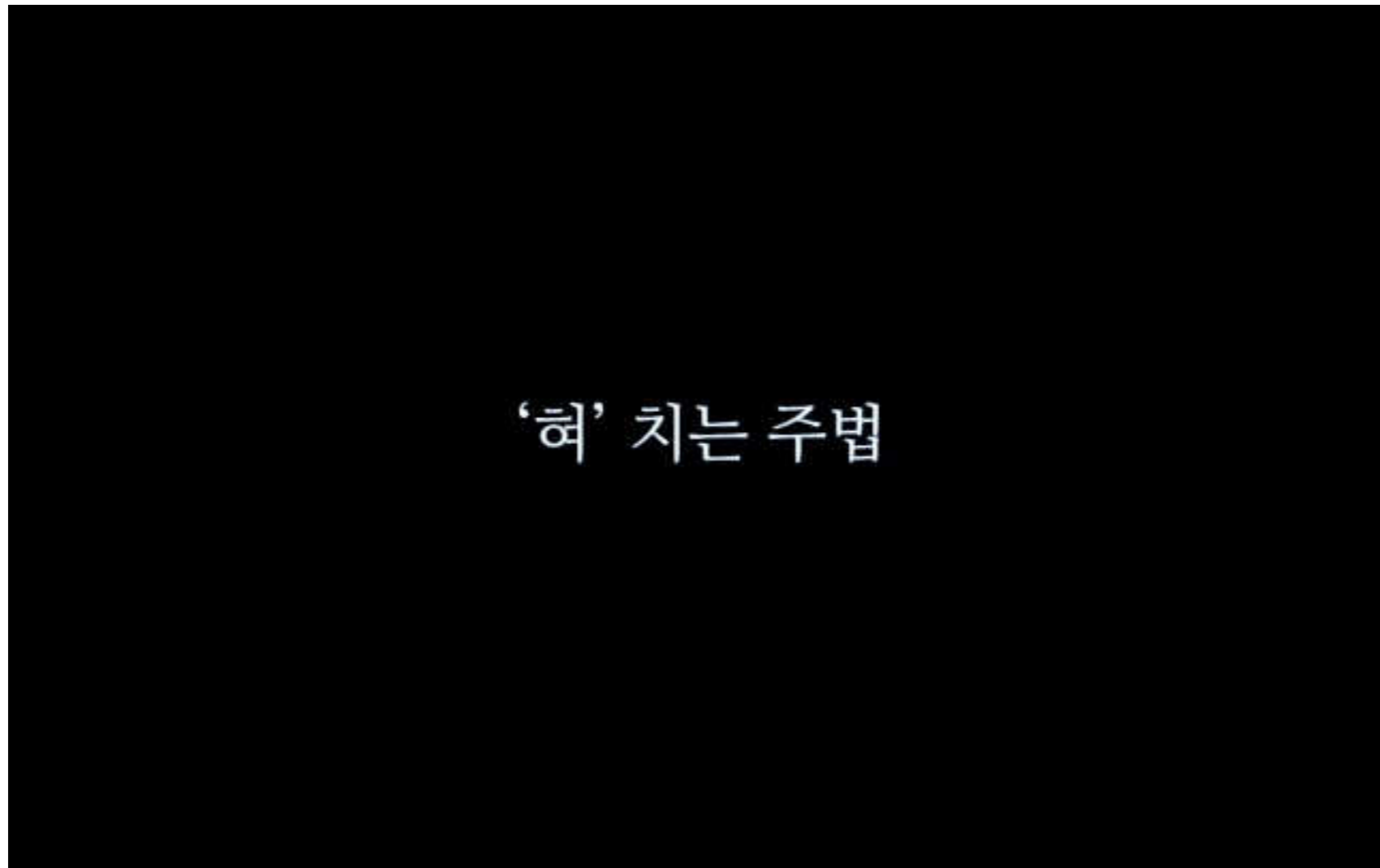
서치기

시네·떼



# 피리 연주 방법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혀가 서에 닿지 않도록 움직이면서 입김의 압력을 준다.



혀치기

시루

루리

요성

혀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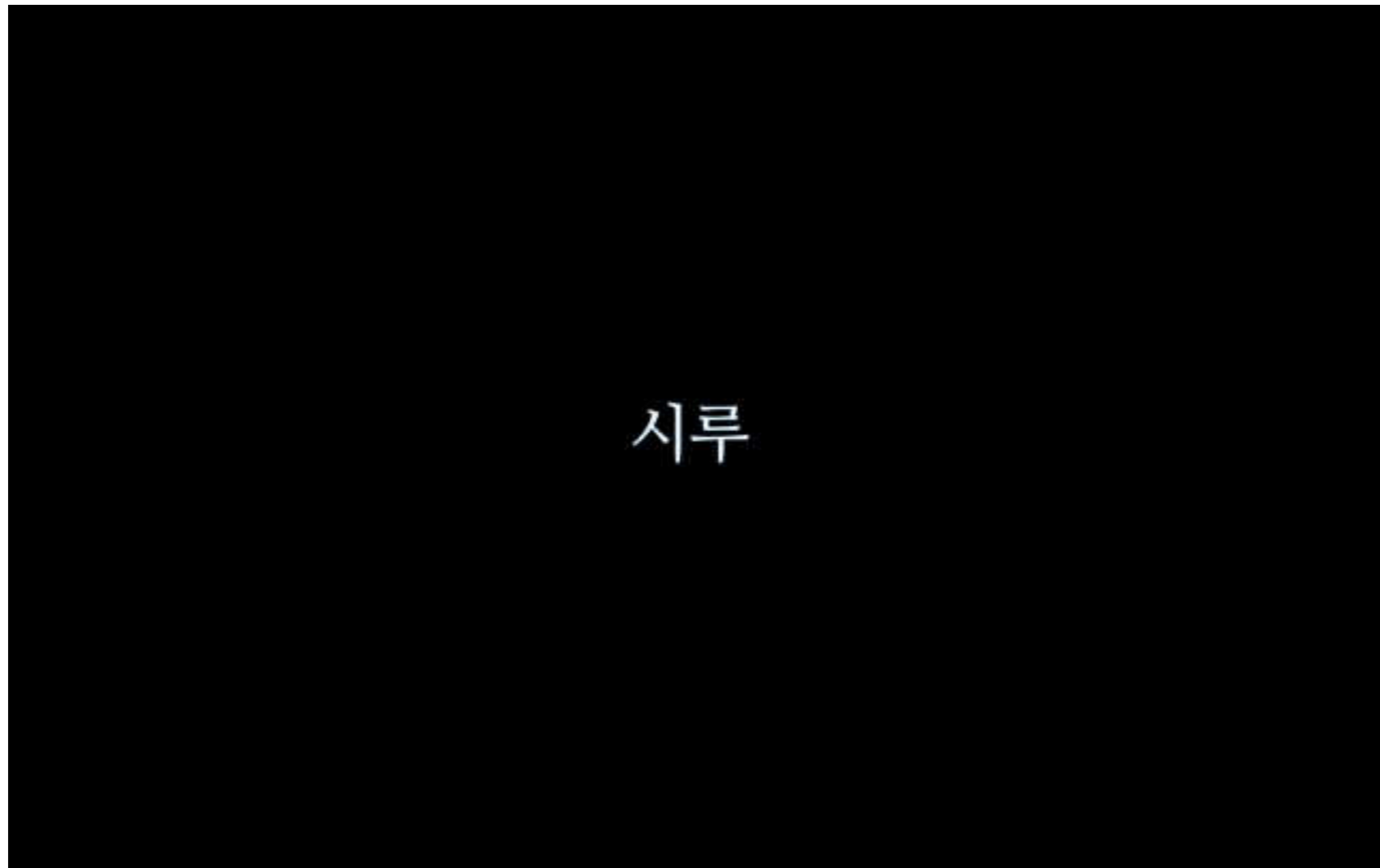
흘림





# 피리 연주 방법

위음을 먼저 내고, 아래음을 연주하고자 할 때 연결하는 중간음을 부드럽게 치듯 소리 내는 주법이다.



혀치기

시루

루러

요성

혀굴림

흘림







# 피리 연주 방법

아래 음에서 위 음으로 연결해 소리 낼 때 손가락을 굴리듯 연주해서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주법이다.



혀치기

시루

루러

요성

혀굴림

흘림





# 피리 연주 방법

중심이 되는 음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지공을 떼지 않고 서를 입에 밀어 한 음가량 높은 음을 내는 주법이다.



혀치기

시루

루러

요성

혀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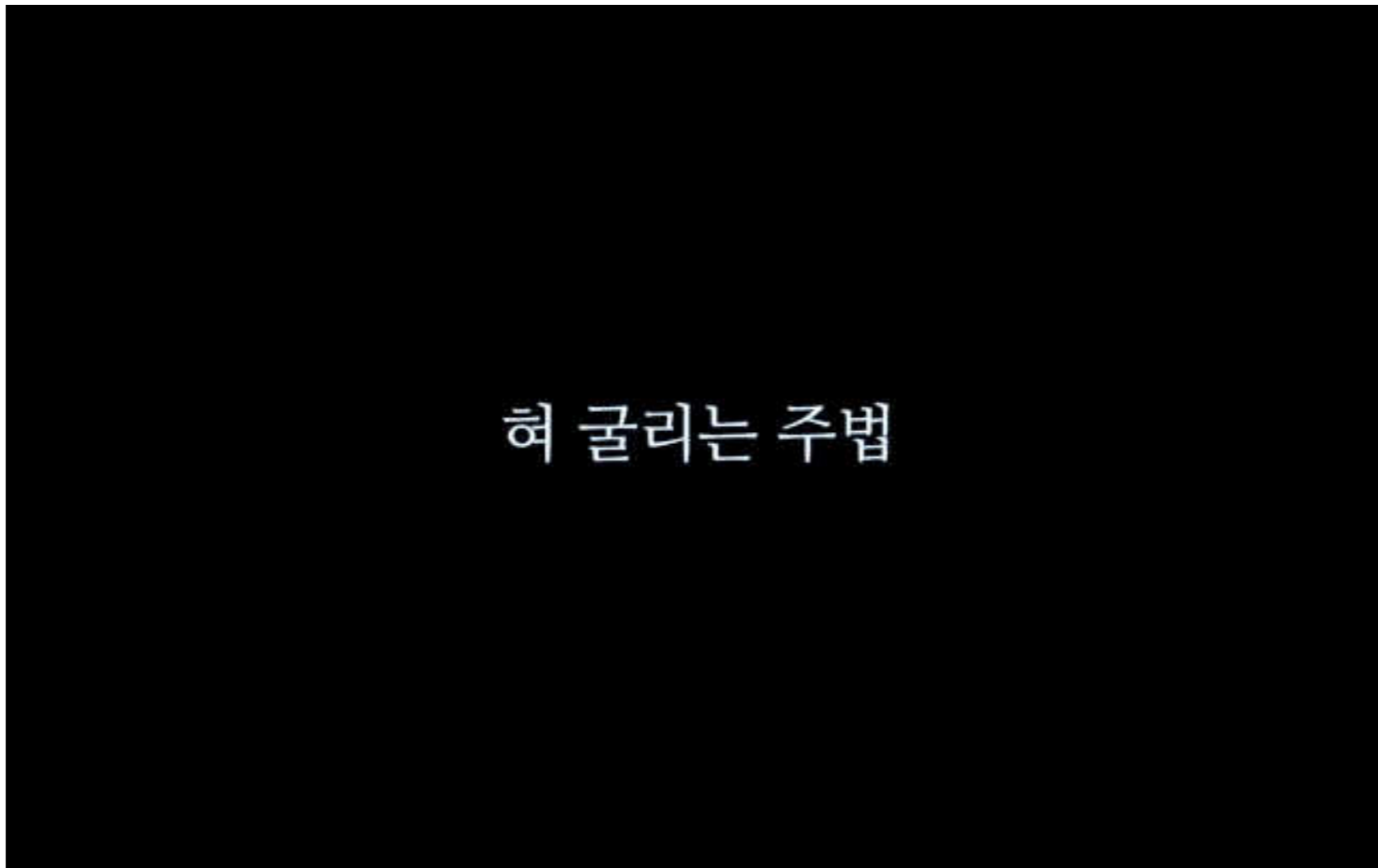
흘림





# 피리 연주 방법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듯 지공을 치면서 음을 굴러 소리 내는 주법이다.



혀 굴리는 주법

혀치기

시루

루러

요성

혀굴림

흘림





# 피리 연주 방법

다음 음으로 진행하기 전, 서를 입에서 빼거나 입김을 줄여 음을 아래로 흘려주듯이 연주하는 주법이다.



혀치기

시루

루러

요성

혀굴림

흘림





### 三

체험하기

음계 및 개별음

감상하기

현장체험



# 음계 및 개별음

붉은 원을 터치해보세요.

	$b\text{C}$	$b\text{D}$	$\text{E}$	$b\text{F}$	$b\text{G}$	$\text{A}$	$b\text{B}$	$b\text{C}$	$\text{D}$	$b\text{E}$	$b\text{F}$	$\text{G}$
지공 1	●	●	●	●	●	●	●	●				○
지공 2	●	●	●	●	●	●	●	○				○
지공 3	●	●	●	●	●	●	○	○				○
지공 4	●	●	●	●	●	○	○	○				○
지공 5	●	●	●	●	○	○	○	○				○
지공 6	●	●	●	○	○	○	○	○				○
지공 7	●	●	○	○	○	○	○	○				○
지공 8	●	○	○	○	○	○	○	○				○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 음계 및 개별음

붉은 원을 터치해보세요.

지공 1	●	●	●	●	●	●	●	●				○
지공 2	●	●	●	●	●	●	●	○				○
지공 3	●	●	●	●	●	●	○	○				○
지공 4	●	●	●	●	●	○	○	○				○
지공 5	●	●	●	●	○	○	○	○				○
지공 6	●	●	●	○	○	○	○	○				○
지공 7	●	●	○	○	○	○	○	○				○
지공 8	●	○	○	○	○	○	○	○				○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 음계 및 개별음

붉은 원을 터치해보세요.

지공 1	●	●	●	●	●	●	●	●	○	○	●	●	●
지공 2	●	●	●	●	●	●	●	○	○	○	●	●	●
지공 3	●	●	●	●	●	●	○	○	○	○	●	●	●
지공 4	●	●	●	●	●	○	○	○	○	○	●	●	●
지공 5	●	●	●	●	○	○	○	○	○	○	●	●	●
지공 6	●	●	●	○	○	○	○	○	○	○	●	●	●
지공 7	●	●	○	○	○	○	○	○	○	○	●	●	○
지공 8	●	○	○	○	○	○	○	○	○	○	●	○	○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체험하기



# 감상하기

태평가

창부타령

노랫가락

최경만의 '피리풍류, 중민요'

민속악

상령산

영산회상중

희문

종묘제례악 보태평중

정악





# 현장체험

## 전시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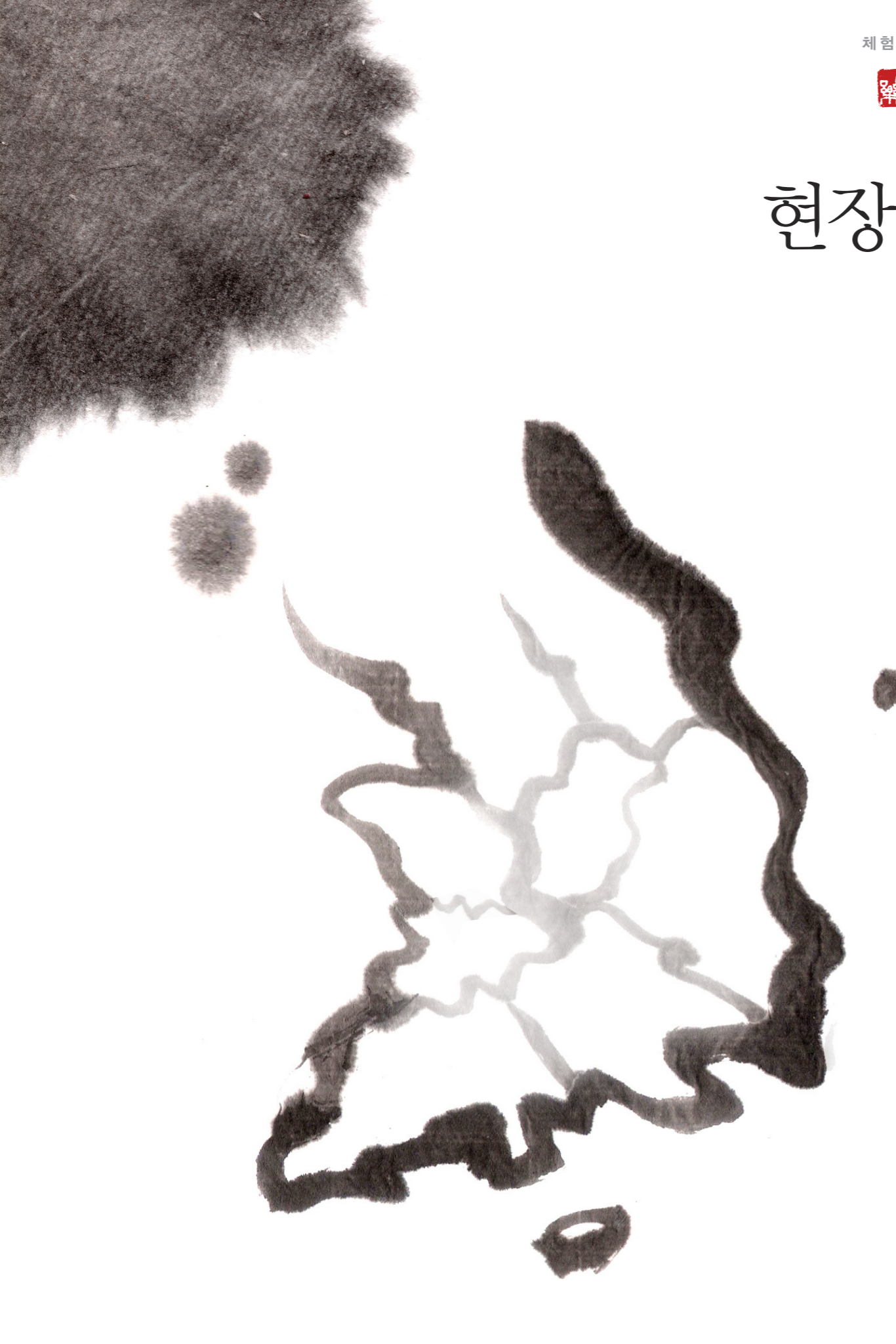
- + 국립국악원
- + 국립국악박물관
- +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 + 기산국악당

## 악기 제작

- +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 +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 악기 체험

- +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 +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 국립국악원 토요일상설무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상설국악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예능 종목도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80분가량, 관람 연령은 취학아동 이상이다. 24세 이하 성인과 경로 및 동반 1인, 장애인 및 동반 2인 등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연 문의는 02) 580-3300으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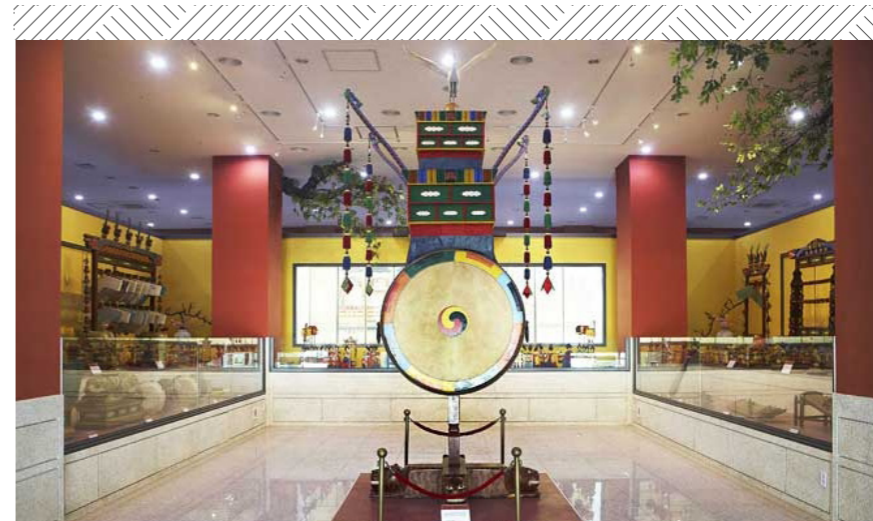
[www.gugak.go.kr](http://www.gugak.go.kr)





#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 국립국악박물관 <악기 전시실>

서울시 서초동 국립국악원 내에 위치한 국악박물관은 <원류음악실>에서 고대 출토 유물과 신라 토우 등에 등장한 악기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편에 가야금 제작 공방이 재현돼 있다. <서민음악실>에는 생활 속의 우리 악기를 전시해놓았다. <세종음악실>을 찾으면 편경 제작 과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www.gugak.go.kr](http://www.gugak.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현장체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인천국제공항을 찾으면 1년 365일, 국악 연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만난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센터(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동·서편(2개소) 및 탑승동 3층 중앙서편(1개소)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은 정악과 민속악 중심의 전통 음악으로 채워지며, 한국문화거리(여객터미널 4층 한국문화거리)에서는 주로 창작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공연 내용은 한국전통문화센터 032) 743-0357, 한국문화거리 032) 741-3423로 문의 가능하다. <http://www.airport.kr>





# 현장체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399



## 기산국악당

산청 출신 국악이론가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곳이다. 복원된 기산 선생의 생가를 둘러볼 수 있으며, 전시된 국악기를 직접 연주해볼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기산관, 전시관, 교육관, 옥외공연장을 갖추고 있고, 기산관과 전시관에는 국악기 50여점을 전시, 인근 관광지인 남사예담촌과 연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남사마을에 위치해 있다.





#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22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일반인을 위한 단기강좌  
서울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개최하는 단기 강좌 수강생 모집을 활용하면 악기장에게 직접 악기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전통악기 과목의 경우 15명 내외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해마다 모집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www.kous.or.kr](http://www.kous.or.kr) 혹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료와 교육기간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의 집 1층 문화연수팀 02) 3011-1702, 1788 에서 안내하고 있다.





# 현장체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21-1



##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에서는 현악기 공방, 타악기 공방, 현 작업실 공간을 활용한 악기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제작촌, 난계국악박물관에서도 국악기의 모습과 생생한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nangyekukak.com](http://www.nangyekukak.com) 이다.







#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22



##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전통예술의 보급과 일반인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일반인 강좌를 개설해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정에 해당하며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자 과정과 중급단계 돈음과정, 고급단계 맺음과정 및 심화과정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국립국악원 내 국악연수관 안에서 전통악기를 직접 배울 수 있다. 교육 문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 [www.ktpaf.org](http://www.ktpaf.org) 나 02) 580-3141로 하면 된다.





#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4-67



##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위치한 국립극장에서는 전통예술에 대한 열정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악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실력에 따라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국립극장 홈페이지 [www.ntok.go.kr](http://www.ntok.go.kr) 에서 수업기간과 시간, 수강료, 접수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 피리



피리 명인 정재국 | 최경만

피리 악기장 이광재

제작 슬루윈

글 김산효

사진 아이.엔 스튜디오

영상 올댓콘텐츠